

클라시카·정약용·목민심서 시나리오

1. 제목	한 목민관의 이야기
2. 등장 인물 소개	목민관, 전임자, 아전, 상사, 백성1, 백성2, 몸종
3. 시나리오 배경	순조 28년 1828, 경상남도 작은 고을의 현감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곳곳이 신념을 지켜나가는 이야기다. 비록 가난하지만 백성을 위한 목민관으로서 일생을 바쳤던 주인공. 훗날 그를 꼭 빼닮은 손자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다.
4. 관련 내용	교재 3장 봉공육조

때는 순조 28년 1828년, 세도정치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며 온 나라에 부정부패가 가득했던 시기다. 전북 고창의 볼품없는 양반 가문의 한 선비는 경상남도도 한 고을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다.

S#1. 관청, 아침

새로 부임한 목민관은 관청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다.

목민관 :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로) 임금님의 명을 받아 드디어 목민관이 되었다. 비록 부족한 몸이지만, 임금님의 명을 받은 이상 이 몸이 다하도록 힘쓰고 노력하여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들 것이다. 다산 선생이 남기신 이 『목민심서』를 늘 곁에 두어 가슴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지.

목민관이 관청으로 들어서자, 아전들이 등장한다. 그 중 한 아전이 나와서 목민관을 맞이한다.

아전 : (꾸벅 인사하며) 오셨습니까~ 저희 아전들은 최선을 다해 원님을 돕겠습니다. 부디 나리께서 이 고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민관 : 정말 고맙네. 나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목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네.

마침 떠날 준비를 마친 전임자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온다. 새로 부임한 목민관을 발견한 전임자는 목민관에게 인사를 건넨다.

전임자 : 반갑네! 자네가 바로 내 후임자로군! 이 고을은 정말 즐거운 곳일세. 특히 아전들이 정말 유능해서 자네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좋을 걸세!

목민관 : 정말 반가운 이야기군요! 저도 목민관으로서 좋은 고을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2. 관청. 집무실. 새벽

부임한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목민관은 바쁘게 고을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각종 장부를 검토하던 목민관은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목민관 : (심각한 표정으로) 거기 있는가!

아전 : (귀찮은 목소리로) 예~ 사또. 무슨 일이십니까.

목민관 : 그래. 이제 장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재(時在, 당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곡식)가 맞지를 않는가! 우리 창고에 있는 재물과 장부의 내용이 너무 다르잖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전 : (다 안다는 듯이) 아... 하하, 나리,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급히 일을 치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하. 저희가 알아서 곧 챙겨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군요.

목민관 : (어이없다는 투로)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아전 : (실실 웃으며) 나리도 참, 다음 세미 징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재도 곧 맞추고 나리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관 : (화가 난 목소리로) 허... 어이가 없어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군. 자네 설마 지금까지 계속 장부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치고 있었던 것인가? 게다가 수금은 또 무슨 이야기인 것이야? 전답마다 규정된 양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농간을 부릴 생각인 것이야?

아전 :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 나리...

목민관 : (호통치며) 이는 절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아전 노릇하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무슨 용기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냐?

아전 : (납작 엎드려서 두 손을 싹싹 빌며) 나, 나리...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에 계셨던 원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명하셨던 것이라... 나리께서도 당연히 이를 명할 줄 알았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목민관: (놀라며) 전임자가 그런 일을 시켰었다고?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아라.

목민관은 아전에게 그동안 벌어졌던 전임자의 부정에 대해 적나라하게 듣게 되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목민관 : (한탄하며) 고을에 이토록 폐단이 많았을 줄은 생각지도 못 했구나... 그래. 다산 선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보도록 하자! 전임자의 부정은 너무나 화가 나지만,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이를 굳이 널리 알릴 필요는 없지. 전임자에게 그동안 빼돌렸던 재물들에 배상을 하라고 조용히 서신을 보내야겠어..

S#3. 전임자의 집. 낮

전임자는 몸종에게 서신을 건너 받는다.

전임자 : (서신을 펼치며) 허허, 이 서신은 뭐가. 음, 그래. 내가 있던 고을 후임자였지. (중얼중얼 대면서 서신을 계속 읽으며) 허, 이 사람 보게...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는군. (화가 난 목소리로) 게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배상?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화가 나는군. 이걸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확 잘라버려?! 감히 내가 누구인줄은 알고 덤비는 건지.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여봐라. 군수 어른신께 오늘 밤 기방에서 잠시 뵙자고 연통을 넣어라.

몸종 : (꾸벅 절하며) 예. 그리 전하겠습니다.

S#4. 관청. 집무실. 낮

목민관은 이후로도 수차례 서신을 보냈지만 전임자에게 답이 오지 않았다.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목민관. 책상 한 쪽에는 『목민심서』가 놓여있다.

목민관 : (심기불편한 표정으로)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선배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야? 분명 난 도리에 맞게 대처한 것 같은데, 수오지심이라곤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군. (잠시 고민에 빠진 후) 하는 수 없지. 상사와 상의해야 할 것 같군. 거기 있는가!

아전 : 예~ 사또. 부르셨습니까?

목민관 :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군수 어른신을 뵈러 가야겠다. 나갈 채비를 할 테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아전 : 예~ 나리.

S#5. 상사의 집무실. 낮

마주 앉은 상사와 목민관. 사이에는 다과상이 놓여있다.

상사 : (미소를 지으며) 그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목민관 : 부끄럽습니다, 어른신. 다름 아니라, 전임 목민관의 부정을 고할 일이 생겨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민관은 상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밝힌 부정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상사 : (놀란 표정으로) 자네... 설마 전임자에게 배상 요구를... 큼, 아니네. (눈을 피하며) 듣고 보니 일단 아전의 부정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그 이후 일을 논하도록 하지.

목민관 : 하지만 아전은 그 이후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있었습시다만.

상사 : (호통을 치며) 어허, 그럼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은 없는 것이 되겠느냐? 응당 죄값을 치르고 이후의 일을 논해야 할 것이다.

목민관 :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듯이) ... 예, 알겠습니다.

S#6. 관청. 집무실. 깊은 밤

책상에 앉아 『목민심서』를 읽다가 깊은 생각에 빠진 목민관.

목민관 : 지금 상황에서 전임자의 죄를 묻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상사가 죄를 다스릴 때는 순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임자를 벌하는 일은 군수 어르신께서 어련히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시겠지. 일단 백성들의 생활을 더 자세히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겠지.

목민관은 온갖 그동안의 부정부패를 발견했지만 당장 시급한 업무들이 매우 많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렇게 상사는 전임자의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S#7. 관청. 집무실. 낮

목민관이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기 위해 관청을 잠시 비운 사이, 목민관의 집무실에 몰래 들어와 각종 서류를 뒤지는 아전.

아전 :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감히 이 고을의 큰손인 나에게 이런 망신을 줘?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라. 바로 네 녀석을 쫓아내 버리겠어.

S#8. 관청. 마당. 낮

시찰을 마치고 관청으로 들어오는 목민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보고 들으니 마음이 아파 발걸음이 무겁다.

목민관 : (수심이 짙은 표정으로) 휴, 정말 이 고을에는 폐단이 너무 많군. 어떻게 이를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야...

멀리서 달려오는 아전. 손에는 서류가 들려있다.

아전 : 나리~ 여기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목민관 : 아, 그래. 고맙네. 이리 주게.

공문을 전해준 아전은 잠시 옆에 서서 기다린다. 목민관은 서서 공문을 살펴본다.

목민관 : 음, 군수님께서 보내셨군... (중얼중얼대며 공문을 살피다가 놀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종합소득세라니,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이로군. 안 그래도 각종 세금과 군역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겠어. 더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절대 그대로 진행할 순 없겠어. (아전을 쳐다보며) 조만간 군수 어른신을 다시 뵈러 가야겠구나.

아전 : (걱정된다는 척을 하며) 나리... 외람된 말씀이오나... 군수 어른신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뵈러 가시는 건지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목민관 : 음, 군수 어른신께서 보내신 공문에서 적혀있는 그대로 일을 진행하였다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폐단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군수 어른신을 직접 찾아뵈고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야.

아전 : (당황하며) 예?... 역시 사또께서 공명정대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작게 중얼거리며) 하나만 걸려 보라...

S#9. 상사의 집무실. 해질녘

마주보고 앉아있는 상사와 목민관.

상사 :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어... 자네 또 왔는가.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목민관 : 부끄럽습니다, 어른신. 다름 아니라, 이번에 보내주신 공문의 내용이 제 얕은 지혜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쭙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처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사 : (답답하다는 말투로) 자네,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군...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충분히 말했지 않은가? 무엇보다 앞으로 자네의 출세가도가 달린 길이라는 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나 보군.

목민관 : (놀란 표정으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상사 : (설득하는 투로) 자네가 그렇게 답답하게 나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하면서 서로 힘들어질 걸세. 자네처럼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 정계에 진출할 때, 내가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정성을 보이라는 뜻 아닌가?

목민관 : 하지만 전...

상사 : (목민관의 말을 끊고) 저번에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던 것 같군. 그 녀석은 지금 세도가로 있는 안동 김씨 가문의 천덕꾸러기 자제라네. 자네가 보냈던 서신들에 대해 내가 적당히 얼렸던 덕에 이 정도로 끝났지, 하마터면 자네 부임하자마자 해임될 뻔했네. 게다가 자네 고향이 전라 고향이 아닌가? 자네 집안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목민관 : ...

상사 : (단호한 말투로) 오늘 면담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공문에 적어놓은 대로, 열흘 정도 시간을 주겠네. 자네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네. (등을 돌리며) 그럼 이제 가보게나.

S#10. 관청. 집무실. 깊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집무실로 돌아온 목민관. 책상 위에는 『목민심서』와 고향에서 온 서신이 놓여있다.

목민관 : (미소를 지으며 서신을 읽는다) 허허, 이 고을에 부임한 뒤로 한 번도 보질 못한 막내아들 개똥이가 벌써 돌을 지났군. 그럼 아이에게 변변한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겠어.

(잠시 고민을 한 후) 그래. 조선에 빛을 밝히는 군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름을 창혁이라고 하면 좋겠군. (기분 좋은 듯 이름을 되 뇌이며) 창혁, 창혁, 전창혁(全彰赫)...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휴... 우리 아이가 돌인데도 찾아 가보지도 못 하는군. 정말 임자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게야...

상사에게 들었던 말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진 목민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뜬눈으로 밤을 지낸다.

목민관 : (마침내 결심했다는 투로) 그래,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산 선생께서 하신 말처럼 상사의 명령이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굴하지 말고 자신을 지킬 것이다!

목민관은 상사에게 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고, 상사에게 제대로 미운털이 박힌다.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공문과 감사가 이어지게 된다.

S#11. 관청. 집무실. 낮

온갖 서류에 파묻혀있는 목민관.

아전 : (깡깡대며) 사또~ 여기 공문이 스무 일곱 개가 왔습니다~

목민관 : (당황한 표정으로) 그, 그래.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거기 두고 가게. 그리고 이걸 저번에 왔던 공문에 대한 보고서일세. 제출하고 오게나.

아전 : 예~ 나리. 옆에 있는 보고서는 전처럼 나리께서 직접 제출하시는 겁니까?

목민관 : 그렇네. (피곤한 얼굴로 눈을 비비며) 방금 준 것만 제출하고 오게.

아전 : 예~ 나리. 그리고 오후쯤 감사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 공간에 저장된 소금을 확인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목민관 : (어이없어 하며) 아니, 이 산골짜기에 소금은 무슨 소금이야... 알겠네. 이따 확인하도록 하지.

아전 : 예~ 나리. (터덜터덜 걸어 나간다.)

목민관은 놀라우리만큼 상사의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잘 버티며 선정을 베풀었다. 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하며 백성을 따뜻하게 돌보는 목민관의 임무에 충실했다.

S#12. 주막. 낮

마루에 앉아서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백성1,2

백성1 : (술을 마시고) 크으~ 야, 솔직히 요새 살만하다. 인정?

백성2 : (음식을 한 입 먹고) 어, 인정. 이게 다 사또 덕분이지. (속삭이며) 저번에 이방노무 췌이가 이자 받을라고 몰래 왔다가 사또가 마침 지나가가고 끌리간 거 솔직히 막걸리 아니었나? (기뻐하는 표정으로) 콩보리밥만 한 100그릇 먹은 것 같은 체증이 다 내려 가더라니깐.

백성1 : (웃으며 큰 소리로) 그것뿐인가. 허허, 원래 우리 집 세금 쌀 서 마지기였는데, 그거 알고보이 저번에 돌아가셨던 우리 할배랑 얘기 때 죽은 우리 막둥이 합해갖고 받고 있었던 거라! 근데 그거 이번에 호구조사 들어가가고 없어졌다 아이가~ 마, 우리 집 요즘에 그동안 생각도 못한 비축이라는 거 하고 있다 카이~

백성2 : 마 그게 다가 아니라카이, (먼 곳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기 향교 영감재이들 귀신 들어온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제사 지내던 거. (호탕하게 웃으며) 우리 사또가 정기 제사 빼고 다 금지해가고 우리 집 뺑 뜯기던 사과, 장에! 나가서! 팔고! 왔다! 아이가! 꺾꺾.

S#13. 관청. 집무실. 해질녘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 목민관. 책상 한쪽에는 너무 많이 봐서 손때가 가득한 『목민심서』가 놓여있다.

목민관 : 벌써 해가 지는구먼. 이제 정리하고 퇴관해야지. (서류 정리를 하다가 서신을 발견한다.)
(기뻐 미소를 지으며) 집에서 서신이 왔었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지?

(서신을 열어 읽으면서 혼자 속으로) 내가 우리 고을에서도 유명하다니, (내내 미소를 지으며 읽다가 놀란 표정으로) 뭐야? 우리 집안 가세가 그렇게 기울었다고? 분명 먹고 살기에 충분한 영

지는 가졌을 터인데, 허, 관청에서 불법토지라고 압수했다고...
(불안해하며) 이걸 설마, 정말 나한테 돌아온 보복인 걸까? (머리를 감싸고 힘들어하며) 안돼...
우리 가족은 안돼...

목민관은 밤새 자신의 신념과 현실의 좌절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다.

S#14. 관청. 집무실. 아침

여전히 집무실에 앉아 있는 목민관. 수심에 잠긴 표정으로 혼자 생각에 빠져있다.
아전은 목민관이 오기 전 미리 공문을 가져다 놓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선다.

아전 : (궁시렁거리며) 예휴. 오늘도 공문이 어마어마하게 왔군. (목민관을 보고 놀라며) 아니, 사또?.....
어제 설마 댁에 안 들어가신 겁니까?

목민관 : (피곤해하는 표정으로) 아, 자네 왔는가.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거기 놓고 가게.

아전 : (걱정스럽게) 나리 안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민관 : (열은 미소를 지으며) 얼마든지 하거나.

아전 : 저번에 나리께서 선물해주신 『목민심서』를 읽고 참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리를 뵈
을 때, 그동안 봐 왔던 양반님들과 같을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지만 나리를 골탕
먹일 생각을 품고 이런 저런 궁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듯한 목소리로) 제가 2년 간 옆에서 나리를 지켜보면서, 나리 같은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리처럼 훌륭하신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
말로 영광입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이걸 정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리의 그 큰 뜻을
펼치기엔 지금 이 나라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 정말로 나리
가 가진 뜻을 존경하지만,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실까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어느 정
도는 포기하시고 더 오래 버티며 큰 뜻을 펼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민관 : 고맙네. 그 생각 때문에 어제 사실 퇴관하지 못했다네. (미소를 지으며) 자네의 이야기에 힘이
나는구먼.

(단호한 표정으로) 거두절미하고, 자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포기할 수 없겠구먼. 백성들에
게 피해를 주면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정말 나를 여기 부임시키신 임금님의 뜻이겠느냐? 나의
충심을 다하여 임금님의 뜻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부러질지언정 굽히는 행동은 절대 할 수가
없다네.

아전 :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저는 나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공문 제출하고 오겠습니다.

목민관 : 그래. (한숨을 쉬며) 휴, 너무 힘들군.

S#15. 관청. 집무실. 오후

여전히 업무에 열중하는 목민관.

그때 흥분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아전이 갑자기 집무실로 뛰어 들어온다.

아전 :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나, 나, 나, 나리! 주, 주, 중앙에서 감사가 왔다고 합니다!

목민관 : (태연한 표정으로) 이번엔 또 뭔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호들갑인가?

아전 : (다급하게) 일전에 암행어사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군 단위로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군수 어르신은 해임되고 현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민관 :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그게 사실이었다? 어서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겠군!

그렇게 목민관의 상사는 해임되었으며, 고을을 풍요롭게 한 목민관을 칭찬하는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려온 문서)와 상(賞)이 내려왔고, 온 고을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S#16.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의 큰 마당. 낮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사당패의 악기 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 고을의 백성이 모두 모여 기쁜 표정으로 음식을 나누어먹는다.

목민관 : (기쁜 표정으로 백성들을 둘러보며) 허허, 고을의 백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아전 : 이 모두 어진 사또 덕분 아니시겠습니까!

목민관 : (엄한 목소리로) 어허, 『목민심서』에서 이르길 수령은 봉공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 모든 건 목민관으로 임명해주신 임금님의 은덕이니 나는 그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목민관과 아전이 지나가자, 백성1,2는 신나서 이야기를 한다.

백성1 :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여옥시 우리 사또 겸손하신 거 봐래이, 옆 동네에 장터 갈 때마다 얘기 들어보면 절대 우리 사또같은 위인은 없을기라!

백성2 : (고개를 마구 고덕이며) 그니까 말이제! 아~ 이거 뭐 사또한테 좀 챙겨주고 그럴 거 없나! 이래 받기만 해가고 기냥 입 속 씻어빠면 돌아가신 우리 할배가 등짝 후려팬다카이.. 이번 추석 땐 따로 사과 한 꾸러미 챙겨 드려야겠노.

그 후에도 목민관의 고을은 평화롭게 지냈다. 가끔 신임 상사에게 정치적 견제를 받았지만, 목민관 덕분에 그 고을은 더 이상 손 댈 수 없는 고을로 여겨졌다.

한편 목민관의 집안은 점점 곤궁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청렴하게 관직에 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목민관은 일정한 임기만을 다한 뒤 정쟁에서 밀려 해임된다.

S#17. 관청. 집무실. 낮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목민관. 옆에서 목민관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전.
책상 한 쪽에는 너털너털해진 『목민심서』가 놓여있다.

목민관 : (한숨을 쉬며) 휴.. 마지막 문서. 드디어 이 고을과 작별이로구나.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아전 : (축 쳐진 목소리로) 나리.. 다른 고을로 부임 받지 못하셔서 어떡하십니까. 나리 같은 분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설 텐데.. 아니, 차라리 여기 계속 계셨다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목민관 : (은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하, 끝까지 날 염려해주다니, 자네도 참 좋은 사람이야.

아전 : (슬픈 표정으로) 정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목민관 : (시원섭섭한 어조로) 음.. 이제 아무 부름 없는 동안 집안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틈틈이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목민심서』에도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리 미루고 있었으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난 정말 가장으로서 실격이구만.

S#18. 고을 입구. 오후.

목민관의 수레가 고을을 떠나려 하자, 길을 막는 백성 무리.

백성1 : (수레를 잡고 소리치며) 사또! 이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리 남겨두고 가십니까!

백성2 :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안 가시면 안 됩니까! 한 몇 년 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됩니까!

목민관은 수레에서 내려, 자신을 붙잡는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몇 년간의 기억이 목민관의 눈앞에 스쳐간다.

목민관 : (애뜻한 표정으로) 다들 미안하이. 하지만 이제 난 가야 하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에
지냈던 몇 년간 정말 행복했다네. 부디 이 고을에 임금님의 은혜가 계속되길 바라네.

목민관은 백성들의 슬픔을 뒤로 하고, 그의 고향 전북 고창으로 돌아간다. 그 후 그가 목민관으로 있던
고을에서는 목민관에 관한 미담이 가득하였다.

그는 고향에서 서당을 운영하며 곤궁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정도로 고결한 삶을 살았다.
물려받은 것이 없는 그의 아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글을 멀리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서당을 운영하였고, 먹고 살기위해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할아버지의 울퉁은 성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의 손자는 훗날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